

6월 15일은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0주년이 되던 날이었다. 6·15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분단된 이래로 지속돼온 분열과 대결을 청산하고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 남북 정상들의 선언이었으며 민족의 약속이었다. 6·15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다.



불자 세상보기

박재산
민족공동체추진본부 기획국장

6·15와 대북확성기

불화로 인해서 남북 공동행사가 무산되고 남과 북이 각각 분산해 개최할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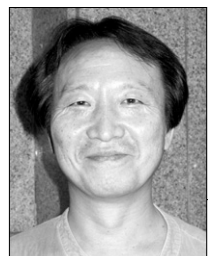
6·15공동선언 10주년 기념행사의 분산 개최가 상징하듯 현재의 남북관계는 최악의 파탄 상태에 직면해 있다. 금강산 관광은 중단됐고, 개성공단의 앞날도 불투명하다. 민간차원의 교류와 지원마저도 정부 불허로 인해 중단된 상황이다.

남북관계가 왜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6·15선언을 부정하고 지키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60여 년 대결과 반쪽의 시대를 화해와 단합, 통일의 시대로 전환시킨 것이 6·15선언이었지 않은가. 이를 부정하고 실현해 나가지 않으면 이전의 냉전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현재 남북관계의 현실이 정확히 말해주고 있다.

6·15선언의 정신은 상대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것이다. 상대가 온전히 내 맘에 들지 않더라도 존중하고 포용하는 자세로 임해야 상호관계는 유지되고 형성될 수 있다. 상대를 부정하고 적대하면 관계는 유지될 수 없으며 깨어지게 마련이다. 그 결과가 대결밖에 남지 않는다. 이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반기지 않는 결과일 것이다.

“신에게 어떤 사람의 행복을 기원해 주는 것 보다 당신이 신이 되어 그 사람을 도와 주어야.”



사부대중 갈럼

김준영
불교인재원 사무국장

기도를 잘 하는 방법

모든 보살들이 세우는 원력의 어머니이다. 자비심은 고통과 번민을 녹이는 용광로이고 감동한 밤바다에서 발견되는 지혜의 북극성이다. 기도는 원력을 키우는 일이다. 그 원력의 궁극은 일체중생을 한평생 남김없이 제도하겠다는 보살의 서원과 하나가 된다. 지극한 기도는 중생제도를 위해 화려한 것은 모든 보살의 마음이 되게 한다. 보살의 행을 실천하게 한다.

한없이 아리석고 부족한 이 몸과 마음 그 대아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는 부처님 가르침과 은혜로움을 진하게 느끼고 감동케 하는 것이 기도의 궁극이고 선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다가 오래지 않아 중도에 포기한다. 이유는 많다. 그 중에서도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변

명이 제일 많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기도를 잘하고 싶어한다. 기도를 잘하면 소원이 이뤄지고 어려움이 해결된다는 믿음(?) 때문이다.

진정 기도를 잘 하고 싶은가? 그 원력을 키우고 키워서 보살님들의 원력에 동참하면 된다. 갖 기도를 시작하는 처음이야 워낙 다급하니까, 급한대로 나만을 위한 마음으로 기도해보자. 구걸 기도라도 해보자. 기복의 기도라도 해보자.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마음이 편해지면 기도의 대상이 된 분에 대해 이론적 공부해 보자.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약사여래님, 아미타부처님 등 자신이 기도의 대상으로 삼은 존재에 대해 알아가자.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부르던 그 분의

이런 측면에서 미뤄볼 때 우리 정부의 대북심리전 확성기 설치에 심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남과 북은 지난 2003년 군장성급회담 합의에 따라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일환으로 전방의 확성기를 제거한 바 있다. 이를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북을 비방하고 부정하는 방송을 보내겠다는 것이다. 이미 북은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재개하면 조준사격해 확성기를 격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상대를 지극히 자극하는 행위로서 상대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아닐까.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남측이 방송을 재개하고 북측이 조준사격하고, 또 다시 남측이 대응사격을 하게 된다면 이는 곧 국지전이 벌어지는 것이고, 전면전으로 비화될 소지를 안고 있다. 과연 이 상황을 누가 제어할 수 있을 것이며, 누가 책임질 수 있단 말인가.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대북확성기를 제거해야 한다.

6·15선언 10주년을 맞는 지금, 우울하게도 전쟁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남북교류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걱정해야 할 문제가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의 문제임을 삼가해야 한다. 다시 6·15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절박한 과제이다.

원력은 무엇인가? 그 분은 어떻게 그런 원력을 갖게 되셨는가? 그 분의 원력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차분하게 의문을 품고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해 보자. 내 바람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던 그 분의 이름이 아니라 그 분의 원력에 동참해 보자. 그 분의 원력과 자비심이 기도하는 내 마음에 살아 숨 쉬게 하자. 이것이 기도의 완성이다.

이 세상 어떤 부처님과 보살님도 당신의 원력의 삶에 불만족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당신의 원력 때문에 불행해졌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기복과 구걸의 지금의 내 기도가 모든 불보살님의 원력과 하나가 될 때까지 느긋하고 당당하게 씩씩 기도해 보자.

기도는 결코 어렵지 않다. 꾸준히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의지가 한없이 나아갈 뿐이다. 차분히 원력을 세우고 뜻 생명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면서 하루하루 자신의 꿈을, 바람을 실천해 가자. 꾸준히 기도하다보면 어느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말씀하셨다. “발심하는 까닭에 항상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마음에 염축하여 잊지 않는 바가 되며, 과거·현재·미래 부처님의 아늑다라삼삼삼보리를 얻게 된다”고. 발심은 중생을 부처로 변화시키고, 원력은 그 변화의 힘을 키운다. 모두 날마다 기도할 것을 발심하자.

사설

종교인들의 남북정상회담 촉구

종교인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장하며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움직임도 있는 중에 우리를 안심시키는 반가운 소식이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은 17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남북 정상회담이 직접 만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종교인 모임은 또 정상회담과 함께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지금 당장 인도적 대북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북한 주민의 고통을 신속히 해결하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평화의 비용이 아무리 많다한들 전 쟁보다 훨씬 적다. 전쟁을 해서 이기다한들 증오와 복수가 따르므로 전쟁에

서 승자는 없다. 일찍이 부처님께서서 원한은 원한으로써 갚아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에 발표한 성명서에는 모두 527명의 종교인들이 서명했다. 진보·보수·중도를 망라한 종교인들이 서명에 동참한 것이 주목된다. 현재의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적 바람이 반영된 것이다.

이명박정부 들어 평화를 주창하고 북과의 대화를 제안하던 좌파로 매도되는 비상식적 분위기가 머구머처럼 우리 사회를 어둡게 했다. 남북의 평화는 우리 민족의 과제이다. 평화에는 좌우가 없다. 이명박정부의 2년여의 대북 정책은 이제 큰 전환의 시기를 맞았다. 종교인들의 양심에 바탕한 목소리를 겹쳐서 받아들여 대화와 포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유 장관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

템플스테이는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대회 때 외국인 관광객 숙박을 위한 대안으로 시작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상품으로 템플스테이를 주목했다. “깨끗하고 편리한 숙박시설, 참선 체험시설, 사찰음식 체험식당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보완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오랜 전통이 그대로 살아있는 아름다운 한국의 사찰에 머물며 고유한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흔치 않다. 문화와 체험과 수행, 쉽, 자연이 어우러진 이 세상 어떤 부처님과 보살님도 당신의 원력의 삶에 불만족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당신의 원력 때문에 불행해졌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기복과 구걸의 지금의 내 기도가 모든 불보살님의 원력과 하나가 될 때까지 느긋하고 당당하게 씩씩 기도해 보자.

기도는 결코 어렵지 않다. 꾸준히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의지가 한없이 나아갈 뿐이다. 차분히 원력을 세우고 뜻 생명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면서 하루하루 자신의 꿈을, 바람을 실천해 가자. 꾸준히 기도하다보면 어느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유 장관은 팔공산 불교테마공원 건립을 저지하기 위해 문화부를 방문한 대구지역 개신교 대표를 앞에서 위와 같은 말을 했다. 템플스테이를 바라보는 유 장관의 인식이 설사 그렇더라도 개신교 대표들에게 할 말은 아니다. 템플스테이와 불교테마공원에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인 불교계에 했어야 한다. 불교테마공원과 관련해서는 지역에서 종교간 갈등의 소지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주무부처의 장관이 한쪽을 편드는 발언을 했다. 자칫 종교간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치 못한 발언이다.

유 장관은 템플스테이를 한국의 문화자원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불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해서도 유 장관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재철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6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외시흥 연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7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지사안내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충청지사 : (043)732-5560 부산지사 : (051)632-0064
전북지사 : (063)910-8977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편집자 신문윤리경영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트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안내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4 데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6 조상대대 진족, 연속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례)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 책자 안내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4 팔계의 상정에 대한 설명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9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망이어야 하는가?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4 이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6 분묘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모두 교환해 쓰십시오”

- 1. ‘적중도’와 ‘효과성’을 최고로 달성시킨 ‘2010 완결보정판’ 육임 상담용 종합CD프로그램입니다. 기존 판매된 「I·II·III·완결판」과 실비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완벽합니다. 모두 교환해 쓰십시오.
2. 신규 구입 가격은 500만원입니다. 매일 매시간별 방문자에 대한 시보(時報)·래정(來情)·특기정황은 물론 작사귀/병귀/신변·가택부정/산소탈이 세세할 뿐 아니라 제(齊)의 효과여부 및 예방법까지 적시되어 있어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3. 「육임활용서책」만을 구입·교환하실 분은 옆 라벨에 적시된 - 수록활용서책 - 중에서 고르십시오. 각 최정전 증보·개정되어 가치 ‘비금’이라 할 만 합니다.
4. 육임종합학습서 ‘효사육임강론’ 上·下 권도 5월말 현재 「2010증보완결판」으로 나와 실비 교환중에 있습니다.



효사 활인천역집 2010 완결보정판
구입·승인·교환 안내 : (051)908-8683 담당 : 진민경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총재 고복자 효사 배상
www.taotemple.net